

경제

■ 법정관리 나주 화인코리아 파산 바라는 까닭은



22일 오후 화인코리아 직원들이 신가공공장 오리훈제라인에서 오리바베큐 잔모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나주기자 mjna@kwangju.co.kr

주문 폭주 1천억 매출 눈앞인데 채권단 독촉에 회사 문닫으라니

채무 정지로 제2회생계획 법원에 호소할 듯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화인코리아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을 요구했다. 왜 그랬을까? 나원주 화인코리아 대표이사는 "회사를 지키기 위한 교육지책"이라며 "파산 선고로 채무가 정리되면 잠시 숨을 돌린 뒤 제2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는 "올해 120억원의 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변제 조건을 개선해 채권단에 동의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지법은 창사 42주년을 23일께 선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과 관련, 직원들은 전혀 동요가 없었다. 22일 오후 3시 나주시 금천면 국내 대표적 닭·오리 가공업체 화인코리아 신가공공장 오리훈제 라인. 위생복을 갈아입고 에어샤워기를

지나 작업장으로 들어서자 70여 직원들이 설새 없이 분주하다. 오리 고기를 굽고, 잔털을 뽑고, 진공포장 하느라 여념이 없다. 12월23일, 창사 42주년을 하루 앞둔지만 주문물량을 맞추느라 잔치는 커녕 일요일까지 반납할 처지다. 김영자(74·여) 씨는 "말도 못하게 삼계탕이 많이 나간다. 창사 기념일이라고 하루 쉬면 주문이 밀려 더욱 힘들다"며 웃음지었다. 화인코리아에는 350여명의 직원들이 있다. 쏟아지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2교대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20여명의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 전남지역 닭·오리 사육농가가 140가구, 국내의 협력업체 300가구 등 화인코리아와 연계된 가구만 790곳이나 된다. 하루에 오리바베큐 1만마리, 삼

계탕 1만5000봉, 닭죽 3만봉을 생산한다.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생산 증가는 매출로 이어져 올해 1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순이익만도 120억원으로 지난해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지난 2004년 화의 신청 이후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내리건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부결은 직원들에게 청천벽력이다. 하지만 회사는 조만간 제2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을 설득할 방침이다. 안이석 경영지원본부 기획감사팀 이사는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무도난 이후 지난해까지 300여명의 부채를 갚는 등 경영정상화에 몰부림치고 있다"며 "올해 12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회사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채권 변제 계획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년 기업 설비투자 6.1% 늘린다

상의 조사... 조선분야 10.3% 가장 높아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국내기업 1012곳을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 설비투자 규모가 올해보다 평균 6.1%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내년 설비투자 규모 증가율은 대기업이 6.7%, 중소기업이 5.8%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났다. 응답 기업의 37.2%가 올해보다 설비투자액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고 올해와 비슷하다는 기업은 57.5%였다. 설비투자를 줄이겠다고 한 기업은 5.3%에 그쳤다. 투자확대 이유로는 신성장동력 등 신규사업 진출(37.3%), 수출·내수시장 긍정적 전망(32.0%), 오래된 시설 개선(26.1%) 등을 꼽았다. 업종별로는 조선 분야의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10.3%로 가장 높았고 통신·방송(9.4%), 철강·금속(8.5%), 기계(8.0%), 정유·석유화학(7.8%) 순이었다. 건설 부문만 유일하게 0.2% 줄이겠다고 답했다.

올해 투자 실적은 지난해 대비 평균 26.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증가율이 28.1%로 중소기업의 25.9%보다 높았다. 올해 투자를 늘린 이유로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내수 시장이 회복됐기 때문(31.3%)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 리스크'가 투자 계획 수립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엔 88.2%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채권단이 대한통운 지분을 매각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다만 대한통운 매각 방식은 공개 입찰과 제한 경쟁 입찰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키로 했다. 22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대한통운 매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대한통운 지분 23.95%를 보유한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사실상 주인으로 등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통운 지분 23.9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 등 몇 군데 대기업들이 대한통운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제값을 받으려면 지금 파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통운 매각 내년 초 본격화

채권단이 대한통운 지분을 매각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다만 대한통운 매각 방식은 공개 입찰과 제한 경쟁 입찰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키로 했다. 22일 금융위 등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말께 대한통운 매각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매각 주간사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대한통운 지분 23.95%를 보유한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의 사실상 주인으로 등극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통운 지분 23.9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형편이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 등 몇 군데 대기업들이 대한통운 인수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제값을 받으려면 지금 파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매각 때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STX, 현대중공업, 한진 등 4곳이 최종 입찰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들 작년 실적 절반으로 뚝

글로벌 금융위기 탓 41만여 법인 65조 이득 그쳐

작년 국내 전체 기업들의 이득이 전년에 비해 무려 45%나 크게 감소하는 등 국내기업 실적도 2008년 9월 이후 시작된 금융위기 여파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국제성이 최근 발간한 '국제통계연보 2010년판'에 따르면 작년 국내의 전체 법인수는 41만9420개로 2008년 39만8331개보다 2만1089개가 늘어 5.3% 증가했다. 또 작년 전체법인의 이득이 2008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은 순이익이 11조원 줄어든데다가 순손실이 42조50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국제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금융보험업(18조원 감소), 제조업(13조원 감소) 등 실적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전체 기업 가운데 1억원 넘는 법인이 1만6100개로 전체의 3.8%를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

의 총부담세액이 32조7203억원으로 전체의 93.9%에 달했다. 전체 기업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은 16.9%였으며 중소기업법인의 공제감면세액비율이 24.4%로 일반기업 법인(15.1%)보다 9.3% 포인트 높았다. 또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은 116억5900만원으로, 지난 2005년 73억9500만원보다 57.7% 증가,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증가했음을 뒷받침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전체 고지세액 3조684억원 가운데 70.5%(2조1634억원)를 과세표준 1억원 초과자(3만6298명)에게 고지했으며 이들의 평균 고지세액은 596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광주은행이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0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은 각종 장학사업을 비롯해 역대 실업팀인 광역도클럽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광주은행 제공>



22일 오전 광주은행이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0 소비자 권익증진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은행은 각종 장학사업을 비롯해 역대 실업팀인 광역도클럽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광주은행 제공>

국제 원유가 2년여만에 최고치

두바이유 가격 배럴당 90.31달러 급등

국제 원유가격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2008년 말 이후 2년여 만에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유가의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원유수입량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은 21일 거래 기준으로 배럴당 90.3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25일 기록된 올해 최저가(88.28달러)보다 22.03달러

(32.2%) 뛴 것이고 이날까지 올해 평균 가격인 77.77달러에 비해서도 10달러 이상 높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달 전인 10월22일 두바이유의 증가가 배럴당 79.06달러로, 두 달 만에 11달러가 올라 상승세도 가파른 편이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금호고속 복수노조 인정

회사측 이의제기 기각 결정

법원이 복수노조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노총 금호고속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22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일 금호고속이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은 노조활동, 급여, 노동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 등 교섭사항에 관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법원은 지난 10월 민주노총 금호고속 노조가 금호산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금호고속

은 판결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회사측은 상급법원에 항고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Market data box showing indices like 코스피지수 (2,038.11), 코스닥지수 (505.01), and 금리 (3.19%).

Large advertisement for '개업·성업' (Business Opening/Success)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